

ART



## 뉴욕에서, Park Chan-Kyong

미술평론가이며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박찬경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역사의 왜곡된 순간을 재해석 지적이고 건조한 (듯 보이지만 실은 감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역사의 감식자로서 현대미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음산하고 감정적인 보고서를 쓰는 이 흥미진진한 미술가를 그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는 뉴욕 티나 김 갤러리에서 만났다.

**꽃** 이 만발하고 푸르름이 가득해야 하는 뉴욕의 5월. 그러나 일주일이 넘도록 먹구름이 가득하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는 덕에 사람들 표정과 옷차림을 포함한 도시 전체가 온통 회색 빛깔이다. 추적추적 비까지 내려 어느 때보다도 더 쌀쌀하게 느껴졌던 그 날. 안 그래도 해가 지면 삭막하고 스산한 맨해튼 첼시 지역에 위치한 티나 김 갤러리(Tina Kim Gallery)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박찬경의 개인전 <Park Chan-Kyong> 오프닝이 열리고 있었다. (5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평론가이며 영화감독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박찬경에게는 영화감독 박찬욱의 동생이라는 흥미로운 타이틀과 함께 포스트-민중미술 시대의 선구자라는 거대한 명칭까지 여러 가지 수사가 따라다닌다. 현재 한국 미술계에서 단색화 이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민중미술. 민중미술은 1980년대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미술과 글로 당시 정치와 사회에 개입하여 변혁 시키고자 했던 한국 미술계의 현실주의 운동이자 흐름이었다. 박찬경은 1990년대 초 이내 사라졌던 민중미술의 정신을 이어받아 젊은 미술가들과 함께 행동하는 미술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이다.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어정쩡하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검은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는 기계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사운드트가 울리고 있었고, 벽에는 위성 사진, 큰 팸플 사진, 문서, 우주선의 모형 등 실재인지 허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이미지와 영상들로 구성된 설치작품 '과외 통로

(Power Passage)'(2004)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2004년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냉전 시절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랑데뷰 도킹이라는 탈냉전 프로젝트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라는 역사적인 실제 자료들을 작가만의 허구와 상상의 이미지들과 함께 재구성한 작품이다. 작가는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주와 지하라는 대비적 공간에서 일어난, 이데올로기의 상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소재로 보아 비교하고 관찰, 해석한 것이다.

다음 공간으로 들어서면 새하얀 벽에 커다란 사진 액자들이 띄엄띄엄 행한 느낌으로 걸려 있다. 역시 심상치 않은 이 공간의 분위기 또한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느껴진다. 한 벽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은 '세 개의 묘지(Three Cemeteries)'(2009)라는 제목 그대로 파주 실향민 묘지, 적군의 묘, 그리고 미군기지에서 장녀로 일하다 사망한 여성들의 사신이 묻혀 있는 동두천 상패동의 무연고자 묘지를 촬영한 사진작품들이다. 또 다른 방에는 소녀의 울음 소리와 무당의 굿 소리가 뒤섞인 장면이 나오는 박찬욱 감독과 공동 제작한 단편영화 <파란만장>(2011)이, 다른 건너편 공간에는 북한의 조선화들을 소재로 한 <정전>(2013)이 설치되어 있었다. 무당, 무덤, 북한, 땅굴. 누가 봐도 어둡고 으스스하며, 낯설면서도 지독히 한국적인 이 풍경들을 보기 위해 여러 인종,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하고 활기찬 관객들이 갤러리를 찾았다. 이 작품들이 무엇을 말하기에 이쪽 뉴욕까지 온 것일까? 그리고 이 작품들을



1 세계의 묘지가 보이는 인스톨레이션뷰  
2,3 인스톨레이션뷰

만든 박찬경이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박찬경의 작품은 이미 런던 이니바(InIVA), 캘리포니아의 레드캣 갤러리(RedCat Gallery) 등에서 몇 차례 전시된 바 있지만 이번 개인전은 뉴욕 프리즈(Frieze) 아트페어와 맞물리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며, 뉴욕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반 회고적(Semi Retrospective) 전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제갤러리 대외협력 디렉터 전민경은 자매 갤러리인 타나 킴 갤러리에서의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 주제인 분단과 무속신앙 등을 통하여 동시대적인 한국의 현대사를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국제 미술계에서 한국 출신의 혹은 한국에 기반을 지닌 작가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프닝 날 저녁 만난 박찬경은 지인들과 함께 답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음산한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줄 정도로 편안해 보였다. 무당들을 찾아다니며 굿에 대해서 연구하고 미스터리와 호러 영화를 적으며 어두운 무덤들을 찾아다니는 이 예술가는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글로 미술계를 비판하던 평론가이자 지성인이며, 정치적이고 진보 성향이 짙은 엘리트주의자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2014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주최하는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의 총감독이’도 했다. ‘귀신 간첩 할머니’라는 비엔날레의 주제만 들어도 그의 이름이 연상되지 않겠는가. 박찬경만의 뚜렷한 스타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은 작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스타일이 없는 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없어서 오히려 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스타일을 보니 박찬경의 것이구나” 하나 봐요. (웃음)

박찬경의 음산한 작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우리 사회에서 ‘터부 시되는 것들’ 또는 ‘잊혀져 가는 것들’을 소재로 삼은, 어찌 보면 파스하고 감각적인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이르렀다. 한국 사회에서 미신으로 치부되고 있는 무속 여성들, 소리가 죽어간 미군부대의 장녀들, 사회에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치부되었던 개룡산의 종교인들, 독일에 파견된 광부과 간호사들, 남들이 목욕하기 쉬운 소재를 쓴다는 점에서 사민의 잘나차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박찬경 자신이 좋아하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의 풍속도와도 닮아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홍도의 ‘기와이끼’를 보면 기와를 올리고 나르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기와가 공중에 떠있어요. 마치 스며사진처럼.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 시대에 그런 그림은 찾기 힘들어요. 새가 날아다니는 그림만 그리던 시절에 그는 굉장히 생생한 노동 현장을 그린 거죠. 노동 다류의 원조랄까.”

박찬경의 작품에는 언제나 사실과 허구가 담담하게 섞여있고, 구매제(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가 함께 배치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질적인 재료와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가 재배열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현대과학으로 소외되고 잊혀져가는 풍경과 소재들을 그는 오랜 시간 연구하고 탐험하여 지극히 컨템퍼러

리한 형식으로, 그리고 박찬경만의 고딕(Gothic)한 스타일로 표현한다. 묻혀 있던 보도영상, 미디어 이미지, 연구 다큐먼트 등을 발굴하여 그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재탄생시키는 작업 방식 또한 ‘잊혀져 가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리서치와 자료 수집 그리고 다방면에서의 접근과 큰 규모를 요하는 작품의 성격 때문에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최소한 일 년의 기간이 걸린다. “저는 작가로서의 자의식 같은 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생활인으로서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사회적인 판단도 하고, 미학적인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잖아요. 그저 그런 것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는 ‘훌륭한 작품’들은 흔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도처에 소재가 있어요. 병풍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제사상이라든지, 절에 있는 종각엔 큰 종이 있잖아요. 물고기 모양의 악기도 있고, 철 차는 것도 있고, 큰 북도 있고. 소리가 뻗어나가는 레이저가 다른 네 악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도 시각적으로 훌륭한 설치미술이죠.” 요즘 무협의 세계에 심취되어 있다는 그는 심각했다. “일본에 호라필름이 있다면 중국에는 거대한 무협의 세계가 있어요. 홍콩 영화는 무협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 출처가 도교사상(Taoism)이에요. 산수화처럼, 깊은 산과 푸른 물을 따라다니는 영웅들 속에 굉장히 중국적이고 동아시아적인 사상이 많죠. 엄청나게 재미있기도 하고.”

작가 박찬경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형 박찬욱과 관련된 것이다. ‘PARKing CHANce’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며 영화를 공동제작하고 연출을 함께 하기도 하는 형과는 사이가 좋다. “형제니까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많아요. 감각이 좀 비슷한 거 같아요. 편하게 작업하지요. 사람들은 싸우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옳은 것이 무엇이라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죠. 나는 이게 더 좋든네는 이게 더 좋아? 그런 건 서로 양보하면서 할 수밖에요.”

현재예술가를 배출시킨 박찬경의 가족 이야기가 궁금했다.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하셨던 게 영향을 많이 끼친 거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그리고 전시도 하고 그러세요. 아마추어 화가 전시회. 이전 비밀인데 전시를 꼭 하셔야겠다 하셔서(웃음) 형 사진하고 내 작품하고 아버지 그림하고 해서 3인전을 일가 친척에게만 알리고 했어요.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보다 훨씬 더요. 외할아버지도 그림을 많이 수집하셔서 집에 그림이 많았지요. 제 딸도 예나메 이전에 관심이 많은데, 그리 쉬운 직업이 아니라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가족 얘기가 나오자 우리의 인턴뷰는 ‘말이 커가는 게 섭섭한 전형적인 딸 바보예요. (웃음)’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18**

글/ 김다예(갤러리스트) 에디터/ 인턴뷰

